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사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스가라의 비전 III

(스가라 2장 1 - 13절)

스가라 선지자는 어느날 밤 한꺼번에 아홉 가지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중 세 번째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스가라는 측량줄을 잡고 도성을 재고 있는 사람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스가라가 첫 번 환상을 볼 때 이미 본 것입니다(슌 1:16).

1. 예루살렘의 확장고 변영

스가라가 왜 측량줄을 잡고 있는냐고 묻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2절)고 대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이 과연 사람이 살 만한 땅인지 넓이와 길이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미래에 완성할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같은 비전을 보이셨다”고 주석합니다.

미래에 완성할 예루살렘이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1). 스가라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4절)

측량을 하는 이 성에는 성곽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안보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5절).

새 예루살렘의 백성은 성곽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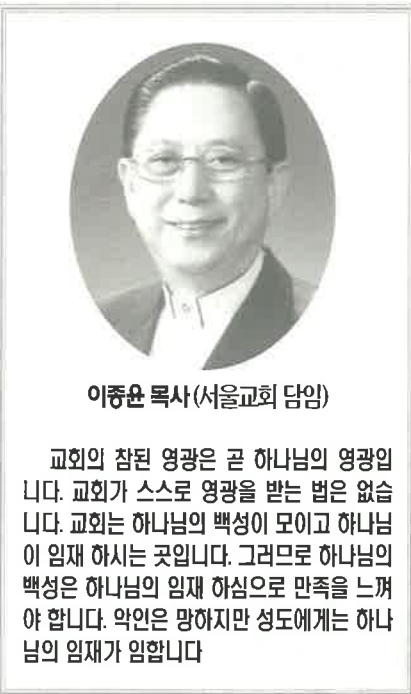
손을 움직인다는 것은 별로 큰 힘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시온의 딸을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10절). 이스라엘은 힘이 약한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더 필요합니다. 메시아는 힘이 약한 사람 가운데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연약한 유대 나라에 오실 것을 스가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 심이니라 하라 하더라”(13절)

실제로 예루살렘은 큰 도성입니다만 본문의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의 국경을 넘어서 이방으로 퍼져나갔고 지금은 온 지구 위에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더욱 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시기 위하여 측량줄을 가지고 재고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교회의 참된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영광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고 하나님이 임재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하심으로 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악인은 망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지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확장하고 번영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말합니다. 교회의 성장에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있으며, 질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질적 성장이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질적으로 우수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입니다.

2. 백성 가운데 임재 하신 하나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계 21:23-34).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보호벽으로 삼고 그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3. 교훈

예루살렘은 측량할 때마다 넓이와 길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토로 삼은 새 예루살렘, 영적 성전은 한계가 없습니다.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2절)는 질문은 계시의 의미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곳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부지런히 알지 못하고 너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측량줄을 가지고 도성을 재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5절).

교회의 참된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영광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고 하나님이 임재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하심으로 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악인은 망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10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7절).

지금쯤 심판의 시간이 연기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시 33: 3)
교구별 찬양대회 임박하다

18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려

2004년 교구별 찬양대회가 임박하였다. 오는 18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구별 움직임이 최종 준비에 들어가는 등 빨라지고 있다.

주관부서인 교구위원회(위원장 김세재 장로)에 따르면 당일 6시 만나 홀에서 간단한 식사와 함께 7시까지 모든 연습을 마친 교구식구들은 다함께 본당에 입장하여 찬양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찬양대회 중간에는 함께 찬양을 하며 자칫 긴장되기 쉬운 분위기를 푸는 시간도 갖게 된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최동규 집사(1부 예배 지휘자)의 특송이 준비되며 이번 찬양대회 심사는 최동규 집

사와 오자경 선생, 서명철 목사, 이태훈 목사 등 네분이 수고하시게 된다.

한편 이번 찬양대회에 참가하는 교구별 순서는 오늘(13일 주일) 당회를 마친 후 510호실(교구실)에서 교구장 장로들이 모여 예비표기로 결정한다. 또한 시상은 믿음 소망 사랑 상으로 구분되며 사랑상을 받게 되는 교구는 20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게 된다.

- 지정곡-찬송가 382장
- 자유곡-(아래 표 참조)
- 심사기준-참여도 50%, 준비성 20%, 음악성 20%, 호응도 10%

<교구별 자유곡 현황>

교구	찬양곡	교구	찬양곡
1	순례자의 노래	8	먼저 그 나라와 의를
2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찬송가 469장)	9	이 세상 어딜 가든지
3	불같은 성령	10	심령이 가난한 자는
4	주 하나님 크시도다(찬송가 40장 편곡)	1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5	내 진정 사모하는(찬송가 88장)	12	오 신실하신 주(찬송가 447장)
6	예수 안에서	13	이 세상의 모든 죄를(찬송가 195장)
7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찬송가 249장)	1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송가 364장)

**2004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주일로 10주간의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2004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특별히 금번 열린 프로그램은 성도들의 배움의 열기로 거의 모든 과목의 수강생이 배가하는 은혜를 누리게 가운데 중장을 하게 되고 168명이 수료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올 후반기에 다시 개강하게 될 열린 프로그램도 더욱 알찬 커리큘럼으로 준비되어 계속 배움의 열기를 이어가도록 기도한다.

오늘 수료하게 되는 열린 프로그램 수료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룻기>
고완순 고정숙 광미숙 김명숙 김민숙 김점숙 김진희 김찬진 박명석 박수옥 박순복 서경애 안명덕 이경구 이미혜 이영숙 이정연 이재봉 전인숙 정동학 주화인 최숙자 최용걸 최일춘 한명순 한치남 함은희 (27명)
- <갈라디아서>
강지영 과 숙 김복승 김연화 김정에 김정희 김진희 김현숙 김혜자 박찬미 백도환 서경애 송은선 오혜경 왕원희 이덕희 이부자 이영숙 이영숙2 임송자 주화인 최규초 최용걸 최죽희 최태경 (25명)
- <전도서>
곽선자 김구진 김규희 김준준 김사라 김숙자 김순구 김양숙 김연화 김영우 김영주 김영희 김은미 김정두 김정희 김종대 김혜숙 김혜영 남태영 민마리아 박경희 박두영 서경애 엄금순 왕정래 원용범 유영준 유을상 윤숙희 이경구 이계홍 이관규 이관모 이규희 이남성 이부자 이승래 이양숙 이종창 이혜순 이현주 장양일

- 전행자 정병무 최미아 최용걸 최일춘 최정순 하영숙 (49명)
- <예레미야>
김연화 김정애 김진희 김찬진 노명자 노순례 민마리아 박두영 박정순 박현영 배병이 서경애 서대식 안정배 양춘경 오충례 이남성 이덕희 이동만 이순복 이인숙 임송자 임옥군 장정화 전행자 정병무 정복순 정유선 조정옥 주동재 최규초 최미경 최용걸 최은실 최일춘 최형렬 최홍렬 하영숙 한충현 황정임 (40명)
- <교사양성반>
김삼연 김영민 김영숙 김영희 김형택 배병이 서정현 신도섭 오천수 원용범 이경구 이현숙 진영숙 최미경 최봉희 하영숙 (16명)
- <교구일꾼양성반>
권소영 김미성 남옥진 박연순 서경선 성수영 오영숙 윤용근 채경희 한 령 함연호 (11명)
총인원: 168명

홍해작전
8일째 진군 중
여호수아서를 통해 은혜 받아

2004년 홍해작전이 오늘로 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주일 발대식을 가진 후 7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번 홍해작전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깊은 홍해바다와 같이 가로막아 기도할 제목이 넘치는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듯이 졸린 눈을 부비고 어린 자녀들까지 깨워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이 보인다.

금번 홍해작전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로 모세가 죽은 후 자칫 방향을 잃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뻔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준비시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7족을 멸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배우고 있어 더욱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고 있다. 매일 새벽 5시.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6월 학습 · 세례식
16일(수) I, II 부 예배시

6월 학습 세례식이 16일(수) I, II부 예배시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1,2부 예배 후 602호에서, 세례 및 유아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부 예배 후 609호에서, 문답은 6월 15일(화) 오후 7시에 602호에서 있다.

해당자는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다락방 분리>

다락방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기존 1-14	박정순 권사	엄지영 집사
분리 1-27	노명자 집사	안명덕 집사
기존 1-20	박영자 권사	이정남 집사
분리 1-28	이미연 권사	이규희 권사
분리 1-29	강윤숙 집사	박정섭 권사

<다락방장 교체>

- 3-8 다락방장 여영숙 권사 → 고정숙 집사
- 3-8부다락방장 고정숙 집사 → 여영숙 권사

<9교구 간사 교체>

- 남자 간사: 유 신 집사
- 여자 간사: 박재숙 집사

<금주의 성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 14:12)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He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NIV John 14:12)

종교개혁의 전통을 기다!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행진!!!



어둠이 물러가기에는 이른 새벽, 5시가 되기도 전부터 교회 주변은 많은 사람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도로 준비하던 홍해작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열리고 있는 홍해작전이지만 특별히 올해는 무엇보다 빠르게 돌변하는 시대의 상황만큼이나 절박하게 전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긴박한 심령 때문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 라는 이번 주제에 맞춰 표어가 된 '바른 생활, 바른 교회, 바른 국가'는 오늘을 사는 서울교회 식구와 이 나라의 성도들 나아가 온 나라에 가장 필요한 생활의 실천인 동시에 아울러 먼저 나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때문인지 홍해를 건너는 심정으로 새벽 단잠을 깨우며 밀려드는 발걸음들이 속속들이 교회로 향하면서 예배당은 금세 성도들로 꽉 채워졌다. 일 년 전, 홍해작전 기간을 통하여 각오하고 결단했던 많은 부분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의 부흥으로 보였다.

이날 이종운 목사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옛사람

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 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행일치의 생활을 할 것과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을 본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하였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봉사자들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로 홍해작전의 첫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었다. 첫날 홍해작전의 길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계단과 일층 교회 로비에 구름 떼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며 끝까지 이 행진을 계속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내가 있어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유명희(편집부)



나의 하나님

3대의 신앙! 아름다운 가정!

이민호 집사(12교구)

산과 들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의 산과 들이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종류의 풀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섭리가 우리 가정에도 있어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가정은 먼저 아버지 이재윤집사, 어머니 이용자집사, 아내 김희집사, 아들 준우 그리고 딸 다은 이로 3대에 걸쳐 6식구로 이루어진 현대판 대가족(?)입니다. 6월의 산과 들이 다양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우리도 남자 셋과 여자 셋이 어우러진 3대가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고자하는 같은 소망을 서울교회 안에서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장 큰 장점은 공통된 대화의 주제가 풍부해진다는 점입니다. 7일 가운데 6일을 각자가 맡은 일에 열중하다보면, 모든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 이르는 60년 이상의 세대(연령)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통된 대화의 주제를 찾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서울교회로 대화를 하면 할 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직 말 못하는 딸아이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주제가 생깁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무슨 대화냐고 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할아버지와 이에 응달이로 답하는 손녀의 대화는 마냥 다정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성경말씀을 같이 보며 다윗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성경 이야기도 듣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은 작은 천국입니다.

유아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조잘거리는 아들과 엄마의 대화로부터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감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6월의 산천초목이 어우러져 나타내는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우자, 함께 건너자, 2004 홍해를...

최중시 장로(종교개혁 참모장)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각오로 출발한 2004 홍해작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작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여호수아)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일시불란한 질서 속에 홍해를 밟았습니다. 밝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멀리하고 출발도 해보지 못한 채 안타까워하는 백성들과 출발은 하였으나 의심의 눈으로 상황을 살

피다 평계하며 주저앉는 낙오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주인의 울안에 함께 있어야 할 당신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남은 7일은 2004홍해작전의 큰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죄악의 성 어리고도 믿음으로 7일동안 성을 돌므로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늑다고 주저할 때가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좇아 온 교회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남은기간 동안 위대한 성경적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출15:13)

천국일문양성 - 서울성신대학교를 마치며

설레임, 기쁨, 그리고 그리움

오정식 목사(5, 6교구담당, 전도서반 강사)

매주 설레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 602호실의 문을 열 때의 떨림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번 전도서 강의의 주제는 '만족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시행해볼 수 있었던 솔로몬, 그러나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난 후에 얻은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만족은 마치 바다 한 가운데서 표류하는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결국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족한 삶의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민과 삶의 실험을 따라 한 주 한 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부득이하게 빠지신 분들에게 그 날 강의에 대해 공부한 흔적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의안에 빨간 줄을 열심히 쳐서 오신 분, 전도서 전체를 필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졸리는 눈을 비비며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함께 고민하며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한 분의 편지 내용처럼, "빠른 시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공부했던 전도서반 성도님들을 새로운 반에서 만나길 작은 마음으로 소원해 봅니다."

장로가정탐방 - 왕경래 장로 가정

너는 내 것이라!!!



"길 잃은 나그네처럼 방황하다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이 일도 과분한데 주님은 나에게 고귀한 직분까지 주셨으니 두려울 뿐입니다". 98년 5기 장로로 피택을 받고 왕 장로님은 순례자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다. 왕 장로님은 남들보다 예수님을 늦게 영접한 만큼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병원 전도, 그는 9년째 토요일을 전도의 날로 정하고 강남병원에 순례자 200부씩 들고 병실을 돌며 복음을 전한다. 혹시 그곳에 과거의 자신처럼 방황하는 영혼이 있을까 하여, 병중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9년 동안이 일을 쉬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청 세무 공무원이었던 왕장로님에게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자학하며 살던 한 때가 있었다. 지나고 보니 이러한 시간들은 왕 장로님 가정이 주님께로 가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 왕 장로님은 주님께 오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결국 94년 세무서를 그만두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지금은 대학에서 회계학과 회계원리를 가르친다.

살롱경로대학 부장과 장년 5부 부장을 맡고 있는 왕 장로님은 이전에 즐겼던 사랑부를 섬기며 장애우들에게 정성을 쏟았다. 그가 장애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처음으로 섬기던 고등부 자신의 반에 자폐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달 동안 그 학생의 집을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알게 있다. 그래서 왕장로님은 92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에 두어 번씩 주몽재활원으로 아이들을 찾아가다.

1939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한 왕경래 장로님은 68년 김정희 권사님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희, 지윤, 재웅 등 1남 2녀를 두었는데 왕 장로님 가정을 전도하던 집사님의 손에 이끌리어 엄마 아빠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은 왕 장로님 가정의 복음의 씨앗들이었다.

왕 장로님 가정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눅 16:10).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왕 장로님,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자신 앞에 주어진 일이라면 충성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보를 본다.

허숙(편집부)

천국일문양성 - 주부대학을 마치며

열린 프로그램 주부대학!

남태순 권사(주부대학 부장)

주부대학을 개설하여 7학기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주부대학은 우리 교회 뿐 아니라 교회 밖 지역과 타종교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부대학을 통해서 우리교회에 등록된 분도 여럿 있습니다. 이번에도 70명이 넘는 분이 등록하여 강의실이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교육내용은 1교시 경건회, 티타임, 2교시 교양강좌 점심식사 후 특별활동으로 짜여 있고 교양강좌는 신앙과 가정생활, 여성의 사회참여, 음식과 건강, 바람직한 자녀교육, 아름다운 부부, 생활법률,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 주부와 가정건강, 건강한 가정경제란 주제로 주부의 관심이 많은 내용이었으며 교회 내외의 강사가 담당하였습니다.

특별활동은 선택으로 종이접기, 인터넷 교실, 요리강좌

가 있었는데 특히 인원이 몰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요리 강좌는 우리교회 성도들 중에서 담당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먼 거리에 사시면서도 직접 재료를 챙겨 오셔서 맛있는 요리를 가르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들 중 배운 것을 바로 집에서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소리도 들리니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을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매주 점심을 준비해주신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4일(월) 연고대 목회자회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17일(목) 장로교 신학회 월례 발표회, 서울여대 이사회, 18일(금)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을 위한 특별위원회(한기총)를 소집한다.
- 개업: 이해숙집사(1교구) 이화피아노아카데미·봉천동 동아@상가A-306.T.875-3040
- 이사: 김순자 집사(1교구) 대치4동 941-5 302호 T: 566-7265 김재신, 손연리 성도(5교구) 관악구 봉천동 대우@120-701 T: 017-763-5680
- 득녀: 김광래 성도, 안미애 성도(1교구)
- 주간 식당봉사: 도르가 여전도회(6월13일) 루디아 여전도회(6월 20일)
- 금요철야담방부서: 중등부(6월 18일) 고등부(6월 25일)
- 금주의 식사: 오치열 집사(하숙 집사 가정)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교회보조

이종운 목사 방송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 참여하여 승전할 수 있도록
2. 교구별 찬양대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